

시각문화 맥락에서 전통 건축 기호의 전이 경로 연구

A Study on the Translational Pathways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Symbols in the Context of Visual Culture

주 저 자 : 진 문 (Qin, Wen)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윤성호 (Yoon, Sung Ho)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부교수
sy235@kookmin.ac.kr

<https://doi.org/10.46248/kids.2026.2.719>

접수일 2026. 05. 17. / 심사완료일 2026. 05. 31. / 게재확정일 2026. 06. 08.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As visual culture expands,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al symbols face formal erosion and semantic disconnection in contemporary design. Moving beyond descriptive cas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 four-stage translational pathway model (extraction,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grounded in visual culture theory, semiotics, and Gestalt principles. Analyzing roof tiles, gabled walls, domes, and lattice windows, the study demonstrates how traditional forms are identified, resolved into basic elements, reorganized, and stabilized as meaningful visual systems. Consequently, three pathway typologies are established: form-oriented, structure-oriented, and symbol-oriented. This model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and practical methodology for symbol transformation, contributing to visual design and cross-media cultural transmission.

Keyword

Visual Culture(시각문화), Traditional Architecture(전통 건축), Semiotics(기호학), Visual Translation(시각적 전이), Gestalt Perception(게슈탈트 지각)

요약

시각문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배경 속에서, 전통 건축 기호는 현대적 전환 과정에서 점차 형식의 약화와 의미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건축 기호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시각 문화 이론, 기호학 이론,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을 결합하여 “추출—해체—재구성—재생”의 4단계 전이 경로 모델을 구축한다. 기와, 박공, 돔, 창호의 네 가지 전형적 건축 요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추출 단계에서는 시각적 식별성, 문화적 전형성, 구조적 독립성의 세 기준에 따라 핵심 형태가 선별되고, 해체 단계에서는 게슈탈트 조직 원리에 따라 기본 시각 단위로 분해되며, 재구성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각 질서가 형성되고, 재생 단계에서 표현의 안정화와 시스템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이 경로를 형태지향, 구조지향, 기호지향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전이경로를 실천 가능한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시각디자인 실천과 문화 전승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기반 및 개념 정의

- 2-1. 시각문화 이론
- 2-2. 기호학 이론적 기반
- 2-3. 시각 인지와 게슈탈트 원리
- 2-4. 핵심 개념 정의

3. 전통 건축 기호의 전이 경로

- 3-1.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특성
- 3-2.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 경로 모델
- 3-3. 전통 건축 기호 전이 경로의 구조적 논리와 단계적 특성

4. 전통 건축 기호 전이 경로의 유형적 특성과 방법론적 의미

- 4-1. 전이 경로의 단계별 특성 정리
- 4-2. 전이 경로의 유형화 정리
- 4-3. 전이 경로의 내적 논리와 방법적 특성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문화는 뚜렷한 시각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이미지는 점차 의미 생산과 전달의 주요 매개로 자리잡고 있다. 시각문화의 맥락에서 전통 건축 기호는 현대 시각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표현의 단절과 의미의 약화라는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계속된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지닌 건축 기호가 점차 주변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디자인이 전통 요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구조와 생성 논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종종 표면적 형식의 병치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 건축 기호의 전이, 전통 민가 장식의 활용, 전통 요소의 현대적 전환 등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랑웨이잉은 중서 근현대 건축 양식과 유파 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축가들이 전통 건축 기호를 처리하는 세 가지 전이 상태, 즉 구상적 복제, 장식적 복제, 추상적 은유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 건축 기호가 현대 건축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밝혔다¹⁾. 또한 신태평은 중국 전통 민가 장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신중식(新中式) 주거 디자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하였고, 전통 장식 요소가 현대 주거 공간에서 가지는 미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 형성 기능을 강조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건축디자인 실천, 전통 요소의 활용, 사례 분석 등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통 건축 기호가 시각문화 맥락 속에서 어떻게 공간적 형태로부터 현대적 시각 언어로 전환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건축 기호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각문화, 기호학 및 시지각 관련 이론을 결합하여 “추출—해체—재구성—재생”의 4단계 전이 경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 건축이 공간적 형태에서 시각적 표현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주안점에 기반하여 경로 유형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전이 과정의 전략적 형식 처리 및 의미 표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정리와 도출을 통해, 본 연구는 전통 건축 기호가 현대 시각문화 맥락에서 전환되는 과정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디자인 실천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표성을 지닌 전통 건축 기호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시각문화 맥락에서 어떻게 전환되는가를 주목한다.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이 경로”라는 방법론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전통 건축 기호가 공간적 형태에서 시각적 표현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주요 내용은 기호 특성의 추출, 형태의 해체, 형식의 재구성 등 핵심 단계들을 포함한다. 또한, 시각문화를 총체적 맥락으로 설정하고, 기호학 및 시지각 이론을 결합하여 전이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연구의 초점을 “경로 논리”의 정리와 유형화에 둔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시각 문화 이론, 기호학 이론 및 게슈탈트 시지각 관련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전이 경로 모델 구축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전통 건축의 대표적 전환 사례를 선정하고, 그 전이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호 특성의 식별, 경로 단계의 분해, 전환 논리의 도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추출—해체—재구성—재생” 경로 모델의 실제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설명력을 검증한다. 이와 함께 귀납과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전이 경로 유형 간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 범위와 방법을 통해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환 과정을 방법론적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연구와 디자인 실천에 논리성과 실천

1) 梁炜莹(랑웨이잉), 传统建筑符号的转译研究 -

中外近现代建筑设计对传统建筑元素的处理和运用, 城市建筑, 06, 2024, pp.150-153

2) 辛铁峰(신태평), 中国传统民居装饰在新中式家居设计中的应用实践, 산둥예술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가능성을 갖춘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기반 및 개념 정의

2-1. 시각문화 이론

시각문화 이론은 20세기 후반 인문사회과학의 중요한 이론적 전환 중 하나로 평가된다.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함께 시각 이미지는 점차 정보 전달과 의미 구성의 핵심 매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인간의 지각 방식과 인지 구조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첼(W.J.T.Mitchell)은 ‘이미지 전환(pictorial turn)’ 개념을 제안하며, 현대 문화가 언어 중심의 이성적 패러다임에서 이미지 중심의 시각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미지가 단순한 재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의미 생성과 문화적 작동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았다.³⁾

한편, 시각문화 연구는 점차 관람 행위 이면의 권력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John Berger는 ‘본다는 행위가 중립적인 지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실천임을 지적하였다.⁴⁾ 이를 바탕으로 푸코(Michel Foucault)는 파놉티콘(Panopticon) 모델을 통해 ‘가시성(visibility)’ 자체가 하나의 권력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개인은 시선에 노출될 가능성 속에서 자기 규율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⁵⁾ 더 나아가 미르조예프(Nicholas Mirzoeff)는 ‘시각성(visibility)’ 개념을 제시하여, 시각 질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선별, 재현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며, 그 핵심은 “무엇이 보이도록 허용되는가”에 있음을 주장하였다.⁶⁾ 이로써 시각은 단순한 지각의 방식을 넘어, 더 이상 단순한 지각 방식에 머무르지 않으며, 기술·제도·문화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인지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통 건

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가 단순한 형식 변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문화 메커니즘과 관람 방식의 영향 속에서 전개되는 재기호화 과정이라고 본다. 기호 추출에서 구조의 재구성, 나아가 시각적 전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는 모두 시각적 선택과 의미 구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전이 경로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호학 이론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 기호의 구조적 관계와 의미 생성 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기호학 이론적 기반

기호학은 시각 기호의 구조와 그 의미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시각문화 맥락에서 전통 건축 기호는 단순한 형식의 집합이 아니라, 형태·구조·문화적 의미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기호 체계로 볼 수 있다. 이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signifier)’와 ‘의미(signified)’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둘 간의 관계는 자의적이며 사회문화적 체계에 의해 확립된다고 보았다.⁷⁾ 이는 건축 형태가 ‘기표’로서 지니는 의미가 형식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에 의해 부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각적 전이 과정에서 형식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의미가 소실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의미의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퍼스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호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구분하였다.⁸⁾ 이러한 분류는 전이 분석에 있어 보다 실천적인 틀을 제공한다. 도상은 형태적 유사성을 강조하며, 이는 그래픽의 가시화와 단순화에 대응될 수 있다. 지표는 구조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이는 공간 관계와 구성 논리의 전이에 대응된다. 상징은 문화적 약속에 의존하며, 의미의 지속과 재표현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소쉬르의 이론을 심화하여 기호가 외연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화’ 메커니즘을 통해

3) Mitchell, W. J. T., 『Picture theory: Essays on verbal and visual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4) Berger, J., 『Ways of seeing』, BBC and Penguin Books, 1972

5) Foucault, M., 『Panopticism. In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Books, 1995, pp.195-228

6) Mirzoeff, N., 『The right to look: A counterhistory of visibility』, Duke University Press, 2011

7)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8) Peirce, C. S.,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 의미를 생성한다고 보았다.⁹⁾ 이는 전통 건축 기호가 도형으로 전이된 이후에도 그 원래의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해석됨으로써 문화적 의미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이론을 종합하면, 기호학 이론은 구조(소쉬르), 유형(퍼스), 의미 생성(바르트)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시각 기호 분석을 위한 명확한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추출-해체-재구성-재생”의 전이 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1] 기호학 이론과 시각적 전이 방법의 대응 관계

출처	핵심 관점	전이 단계	전이 시사점
소쉬르	기표, 기의	추출, 해체	형식과 의미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재구성 가능
퍼스	도상, 지표, 상징 기호	재구성	서로 다른 기호 유형은 서로 다른 전이 방식에 대응
바르트	외연, 내포, 신화	재생	기호는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생성

이상의 고찰을 통해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는 단순한 형태 추출 과정에 그치지 않으며, 의미의 재구성과 문화적 차원의 재부호화가 포함되는 복합적 과정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이 다차원적 과정을 경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3. 시각 인지와 게슈탈트 원리

게슈탈트 심리학은 20세기의 중요한 심리학 이론으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핵심 명제를 통해 인간의 시각 인지의 기본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시각 정보의 조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¹⁰⁾ 이 이론은 인간의 지각이 개별 요소들의 단계적 결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로서 의식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

다.¹¹⁾ 따라서 건축 지각 과정에서 관람자는 개별 요소를 순차적으로 인식·통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태와 공간적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게슈탈트 심리학은 시각 체계가 어떻게 개별 요소들을 질서정연한 전체로 통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시각 지각의 조직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중에 도형-배경 관계, 근접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폐쇄성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는 시각 조직의 기본 법칙을 구성한다. 디자인 및 공간 연구에서 설계자는 형태 관계, 공간적 거리, 시각적 대비를 조절함으로써 관람자의 주의와 인지 방식을 유도하여 명확한 시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지각 원리는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에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이 과정은 전체 구조에서 출발하여 그 내재적 관계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다. 전이의 유효성은 관람자의 지각 습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도형이 인지 차원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문화적 의미가 인식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따라서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는 시각 인지 메커니즘에 기반한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형식 구조와 인지 법칙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전이 경로에서 “해체-재구성” 단계의 시각적 조직 방식에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표 2] 게슈탈트 조직 원리 및 시각적 전이에서의 적용

원리	기본 의미	도형 표현 방식	전이 의미
도형-배경 관계	주체와 배경을 구분	윤곽 강화 / 대비	기호의 식별성 향상
근접성의 원리	공간적 근접을 통해 전체 형성	집합적 배치	구조 관계 형성
유사성의 원리	속성의 유사성을 통한 통일 형성	반복 / 모듈화	시각적 통일성 강화
폐쇄성의 원리	불완전한 형태를 보완	여백 / 단절된 윤곽	단순화하면서도 식별성 유지
단순성의 원리	가장 단순한 구조로 수렴	기하화 / 추상화	전달 효율 향상

게슈탈트의 전체성과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에 대한 의미는 세 가지 측면

9) Barthes, R., 『Mythologies (A. Lavers, Trans.)』, Hill and Wang, 1972

10) Wagemans, J., Elder, J. H., Kubovy, M., Palmer, S. E., Peterson, M. A., Singh, M., & von der Heydt, R., ‘A century of Gestalt psychology in visual perception: II. Conceptu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38(6), 2012, pp.1218–1252.

11) Lidwell, W., Holden, K., & Butler, J., 『Universal principles of design (Revised & updated ed.)』, Rockport Publishers, 2020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전이는 부분적 조합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핵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호의 인식은 전체적인 관계와 질서에 의존한다. 둘째, 도형 표현은 시각 요소의 조직을 통해 명확한 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매체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전이 효과는 궁극적으로 관람자의 인지 습관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가 효과적으로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다. 종합하면, 시각적 전이는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라 인지 메커니즘에 기반한 구조적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2-4. 핵심 개념 정의

2-4-1. 전통 건축 기호

전통 건축 기호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장기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인식·수용되어 온 건축적 시각 요소 및 그 의미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지붕 형식, 구조 체계, 장식 문양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질적 형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확장된 문화적 관념, 미적 이상, 사회적 질서 등과 같은 심층적 내포도 함께 포함한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 건축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통일체로 이해될 수 있다. 외적 형태는 각각 가능한 시각적 매개를 구성하며,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는 기호의 내포를 이룬다. 시각문화의 맥락에서 이러한 기호는 더 이상 특정 공간에만 종속되지 않고, 점차 전달 가능한 시각 자원으로 전환되어 이미지 체계 및 다양한 디자인 매체로 확장된다. 이로 인해 그 의미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재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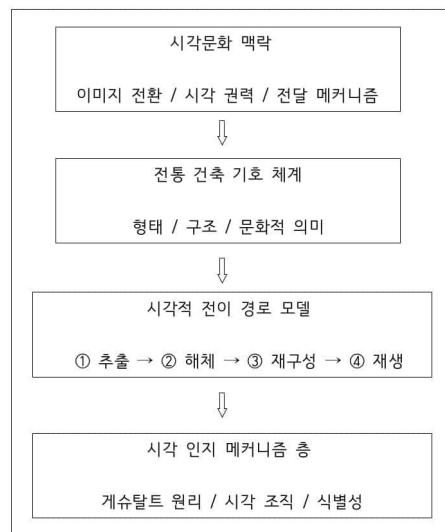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통 건축 기호를 형태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며, 다양한 매체에서 전이 및 재표현이 가능한 시각 기호 체계로 정의한다.

2-4-2. 전이의 개념

본 논문에서 ‘전이’는 언어학적 의미의 ‘번역’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기호가 서로 다른 매체와 맥락 사이에서 전환되며 재표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기호가 원래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각적 맥락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형식의 재구성과 의미의 재구성을 수행하는 동적인 전환 과정이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전이는 ‘기표—기의’ 관계의 재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형식의 변화를 통해 의미의 연속성 또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기호가 서로 다른 전달 체계 속에서 재부호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문화적 맥락과 관람 방식의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시각 법칙에도 부합해야 하며, 전이된 도형이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건축 및 디자인 맥락에서 전이는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 형태가 2차원 도형 언어로 전환되는 것으로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 건축 기호는 점차 공간적 실체에서 시각 정보로 변환되며, 표현 방식은 구조와 구축에서 도형과 기호 중심으로 전환된다.

본 논문은 ‘전이’를 현대 시각문화 맥락에서 전통 건축 기호를 추출하고 재구성하여 다시 표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그 핵심은 형식 전환과 문화적 의미의 협동적 지속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문화, 기호학, 시각 인지 관련 이론을 통합하여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 경로 모델을 구축한다. 해당 모델은 시각문화 맥락을 전제로 하고, 기호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시각 인지 법칙을 지지 체계로 삼아 “추출—해체—재구성—재생”의 전이 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후속 분석의 핵심 이론적 틀로 활용한다.



[그림 1] 이론적 틀 구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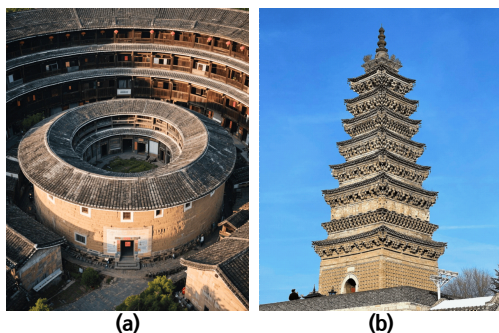
3. 전통 건축 기호의 전이 경로

3-1.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특성

전통 건축 기호의 가장 직관적인 시각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건축의 외형과 구조적 형태에 나타난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이러한 형태는 점차 집단적 문화 기억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시대 정신과 미적 경험을 담아내는 중요한 시각적 매개가 되어왔다. 따라서 관람자는 특정한 건축 형태를 마주할 때 감정적 공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시각적 전이를 위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 형태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적 실체에 그치지 않고, 인식 가능한 시각 기호 단위로 추출될 수 있다. 전통 건축 형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각적 특성의 추출 방식을 크게 '전체 형태 추출'과 '부분 요소 추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 중 전체 형태 추출은 건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 윤곽과 구성 관계를 개괄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건축의 전체적 이미지가 담고 있는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인지에 보다 주목하며, 구체적인 전이 과정에서 윤곽의 단순화와 비례의 추상화를 통해 식별성이 높은 도형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푸젠성 토루의 원형 윤곽이나 밀침식 전탑의 층위적 점층 형태는 비교적 안정된 기하 구조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 형태에서 도형 표현으로의 매체 간 전환이 가능해진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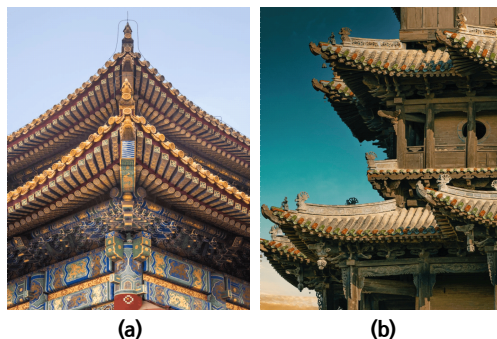


[그림 2] (a) 중국 푸젠성 롱옌시의 토루 <청계루(承啓樓)>, 강희 48년(1709년)¹²⁾
(b) 중국 허베이성 당저우시 <보리사탑(普利寺塔)>, 복송 황우 연간(1055년)¹³⁾

12) <http://xhslink.com/o/AbiAxb6CXM>
13) <http://xhslink.com/o/38sAkGnNKy>

부분 요소 추출은 주로 지붕, 두공, 창호와 같은 건축의 전형적 특징을 보이는 구성 요소에 주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재들은 형태가 뚜렷하고 명확한 구조로 시각적 전이의 핵심 원형이 된다.

특히 지붕은 전통 건축에서 가장 식별성이 높은 부분으로, 구조, 처마 형식, 곡선의 변화가 중요한 시각적 특성을 구성한다. 가파른 경사와 위로 솟아오르는 곡선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은 전체 형태 안에서 명확한 시각적 유도 기능을 한다. 전이 과정에서 지붕의 형태는 전체 윤곽의 일반화, 처마 구조의 강조, 곡선 관계의 추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추출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변형을 이룰 수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3] (a) 중국 베이징 <고궁태화전(故宮太和殿)>의 돌출된 처마, 강희 34년(1695년) 중건, 1697년 준공¹⁴⁾
(b) 중국 산시성 용지시 <추풍루(秋風樓)>의 돌출된 처마, 청나라 동치 9년(1870년)에 중건¹⁵⁾

두공은 전통 목구조 건축의 중요한 구조 단위로서, 형태와 구조의 특징을 동시에 드러낸다. 층층이 중첩된 구조는 역피라미드와 유사한 시각적 형태를 형성하여 강한 모듈화 특성을 보인다. 또한, 하중 지지와 전달 방식이 명확한 구조적 논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전이 과정에서 두공은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되거나, 구조적 관계로 변형될 수도 있으며, 더 다양한 수준에서 시각적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3 (a) 참조)

창호는 주로 격자 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직선과 곡선의 결합을 통해 복잡한 격자와 장식 패턴을 형성하고 뚜렷한 리듬감과 질서를 드러낸다. 이러한 반복성과 모듈화 특성은 전이 과정에서 기본 도형 단위로 보다 쉽게 추출하고, 조합과 변형을 통해 새로운 시각 체계

14) <http://xhslink.com/o/2JhYiyXu8A>
15) <http://xhslink.com/o/3X6yc5jSYWQ>

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4 (b) 참조)



(a) (b)

[그림 4] (a) 중국 산시성 원청시 <비운루(飞云楼)>의 두공, 명나라 정덕 연간(약 1500년 전후)에 창건¹⁶⁾
(b) 중국 전통 창호의 일부 양식¹⁷⁾

종합하면, 전통 건축은 시각적 차원에서 전체 구조와 부분 요소가 함께 구성하는 다층적 특성 체계를 드러낸다. 전체 형태는 기본적인 윤곽을 인식하도록 하며, 부분 구성 요소는 시각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며, 그 안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는 형식 조직의 내적 논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전통 건축 기호는 추출과 전이를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부분 요소 차원에서 출발하여, 대표성을 지닌 건축 기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기에는 기와, 돔, 창호 문양, 마감벽¹⁸⁾ 등 전형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해와 정리를 통해, 이후 “추출—해체—재구성—재생” 전이 경로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방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3-2. 전통 건축 기호의 시각적 전이 경로 모델

3-2-1. 추출과 해체: 공간 형태에서 시각 요소로

전이 경로의 전반부 단계는 전통 건축 기호에 대한 기초 분석 과정으로 ‘추출’과 ‘해체’로 구성된다. 그 핵

심은 복잡한 공간 형태를 조작 가능한 시각 요소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제 2장의 이론적 틀과 결합하여 살펴보면, 이 단계는 시각문화, 기호학, 시각 인지 이론의 복합적 지지를 받는다.

추출 단계에서의 핵심은 대표적인 건축적 상징을 식별하고 선택하는데 있다. 이 과정은 형식적인 선택뿐 아니라 문화적 판단을 포함한다. 미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지는 중립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따라서 시각문화적 맥락에서 모든 건축 요소가 동일한 전달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시각적으로 높은 식별성과 명확한 문화적 지향성을 갖는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선별 과정은 푸코가 강조한 ‘가시성’ 메커니즘, 즉 어떤 요소가 시각적 표현에 포함되는 요소 자체가 의미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추출 단계는 ‘기표’의 식별과 분리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쉬르의 이론 구조에 따르면, ‘기표’로서의 건축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 의존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이 과정은 건축 외형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형태를 선택적으로 정제하여 전이 가능성을 지닌 시각 형태를 추출하고, 이후 의미 재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앞서 선정한 네 가지 전형적 요소를 추출 단계의 구체적 조작 대상으로 설정한다. 첫째, 시각적 식별성으로 전체 윤곽 또는 부분 구조가 맥락 없이도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의 형태적 명료성을 갖춘다. 둘째, 문화적 전형성으로 해당 요소가 특정 건축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안정된 문화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다. 셋째, 구조적 독립성으로 요소 자체가 내부 조직 논리를 지니고 있어 원래 건축 맥락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시각 단위로서 조작 및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 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요소일수록 전이 과정에서 형식의 정제와 의미 지속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요소 추출이 완료된 이후, 전이 과정은 ‘해체’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의 핵심은 전체 건축 기호를 점, 선, 면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 단위로 분해하고, 그 내부의 구조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다. 이 과정은 기호학의 구조 분석에 대응될 뿐만 아니라 게슈탈트 심리학의 조직 원리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시각 인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직과 재구성을 수행하는 과정이다.¹⁹⁾ 따라서 건축 형태에 대한 해체를 통해, 본래 복

16) <http://xhslink.com/o/2EffHb7Sp3qc>

17) <http://xhslink.com/o/9BRYJOG6tKb>

18) 마감벽(马背墙头, Ma-bei walls)은 박공의 일종으로, 중국 남부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말등 모양의 곡선형 가체 또는 담장 상부 구조를 말함. 풍화산벽, 화벽, 규벽, 말박공, 규벽 등으로 불림.
维基媒体项目贡献者. (2026,05.13). 五行山墙. Wikipedia. <https://zh.wikipedia.org/wiki/五行山墙>

잡한 공간 구조를 보다 분석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시각 언어 단위로 전환할 수 있다.

[표 3] 형태 요소 추출 과정

구분	형태 요소 추출 과정 개략도
기와	
박공	
돔	
창호	

※ 요소 추출 전: 기와20) / 박공21) / 돔22) / 창호23)

구체적으로, 기와의 반복되는 곡선 단위 분해는 유사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하며, 박공의 윤곽선 추상화는 폐쇄성의 원리에 따라 불완전한 선형 요소들이 하나의 연속된 윤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돔의 기하학적 환원은 단순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복잡한 곡면 구조를 가장 안정적인 시각 형태로 수렴시키는 과정에 해당하며, 창호 문양의 형태 전환은 근접성의 원리에 의해 분할 단위들 간의 구조적 연결이 형성되는 방식을 따른다. 이처럼 해체 단계는 단순히 형태를 쪼개는 과정이 아니라 인지 매커니즘에

19) Wagemans, J., Elder, J. H., Kubovy, M., Palmer, S. E., Peterson, M. A., Singh, M., & von der Heydt, R., Op. cit., 2012, pp.1218-1252.

20) <http://xhslink.com/o/2gnK7Ukxs7G>

21) view.inews.qq.com

22) <http://xhslink.com/o/82NqOX3TCGI>

23) www.sina.cn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각 요소를 재조직하는 전 단계로서 기능한다.

[표 4] 요소 해체 과정

구분	요소 해체 다이어그램
기와	
박공	
돔	
창호	

종합적으로 볼 때, ‘추출-해체’ 단계는 형식 차원의 전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건축 기호에서 시각 언어로의 부호화 과정을 초기적으로 실현하며, 이후 ‘재구성-재생’ 단계의 전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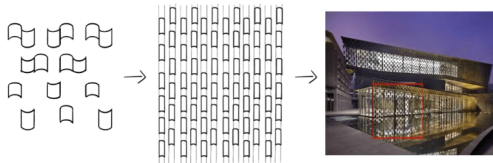
3-2-2. 재구성과 재생: 도형 조직에서 의미 생성으로

‘재구성’과 ‘재생’ 단계는 요소 추출과 해체가 완료된 이후 전개되는 과정으로, 그 핵심은 점, 선, 면 및 구조적 관계로 전환된 시각 요소를 다시 조직하여 전체성을 지닌 도형 구조로 재편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각 요소는 재구성 과정에서 더 이상 원래의 건축 형태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으며, 해체 단계에서 확인된 시각 조직 원리에 따라 재조합된다. 유사성의 원리는 반복 단위 간의 전체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근접성의 원리는 요소들의 집합적 배치를 통해 새로운 구조 관계를 구성한다. 폐쇄성의 원리는 여백과 단절된 윤곽을 활용하면서도 식별성을 유지하는 표현 방식을 지지하며, 단순성의 원리는 형식 압축을 통해 전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재구성은 임의적인 시각 실험이 아니라, 해체를 통해

파악된 구조적 논리를 인지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규칙 기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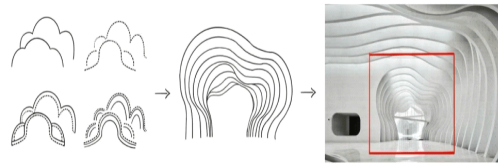
기와를 사례로 들면, 해체 단계에서 그 형태는 이미 곡선형 윤곽과 선형적 배열 관계로 귀납되며, 반복 단위와 층위적 구조의 특성이 드러난다. 재구성 핵심은 기와라는 개별 구성요소 자체를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리듬을 재조직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가 구마 겐고(Kengo Kuma)가 설계한 <Chengdu Xinjin Zhi Museum>의 건축 외피 디자인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기와 요소의 재구성 사례
<Chengdu Xinjin Zhi Art Museum>²⁴⁾

이 건축은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위치하며 2011년에 완공되었다. 외관은 신진 지역에서 생산된 기와를 활용하여 마감되었다. 기와 요소가 겹겹이 쌓여 관계를 만들고, 반복적 리듬을 추출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파사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와는 자봉의 구성 요소로서의 기존 조직 논리가 건축 전체의 외피 구조로 확장되었으며, 특정한 재료에서 시각적 질서로 전환되어 새로운 스케일과 맥락에서 현대적인 표현을 형성하게 되었다. 관람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기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와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질감의 총체로 인식하게 된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기표의 재구성을 보여주며, 그 의미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서 전통적 질서와 지역의 기억에 대한 추상적 표현으로 전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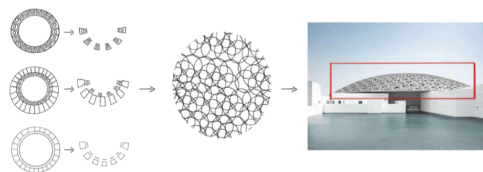
이에 비해 박공의 시각적 특성은 주로 윤곽의 형태와 경계의 리듬에서 나타난다. 해체 단계에서 그 형태는 연속적으로 기복하는 윤곽선으로 추상화되며, 이러한 관계가 주요한 식별 요소로 형성된다. 유공지안(Yu Kongjian)이 설계한 <China Xuan Paper Museum>은 이러한 전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림 6] 박공 요소의 재구성 사례
<China Xuan Paper Museum>²⁵⁾

해당 건축물은 중국 선지의 고장인 안후이성 쉬안청시 장현에 위치하며, 2010년경에 완공되었다. 건축 본체는 휘파(徽派) 전통 박공벽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그 윤곽적 특성을 추상적으로 정제하여 '중첩과 엇갈림'의 공간적 리듬을 도출하였다. 본래 개개의 건축에 종속되었던 경계 관계는 확장 가능한 형태 단위로 재구성되었으며, 스케일과 간격의 변화를 통해 연속적인 시퀀스를 형성한다. 박공벽은 부분적 구성 요소에서 전체 공간 형태를 제어하는 기본 요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로의 전환은 재구성 단계의 핵심 논리를 구현한다. 시각 지각의 측면에서 관람자는 개별 세부 요소에 주목하기보다 연속적인 윤곽의 리듬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의미 또한 구체적인 건축 형식에서 보다 포괄적인 지역 문화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돔의 전이 경로는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시각적 특징은 부분적 요소나 경계 윤곽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구조적 관계에 기반한다. 해체 단계에서 돔은 중심을 축으로 하는 기하학적 체계로 요약되며, 그 핵심은 축의 질서, 대칭성, 그리고 경계에서 중심으로 수렴하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재구성의 핵심은 곡면 형태를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성과 전체성을 재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한 <Louvre Abu Dhabi>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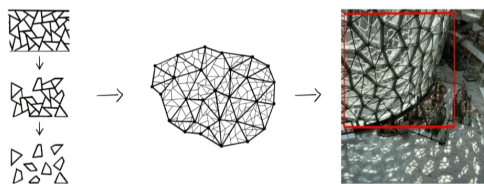
[그림 7] 돔 요소의 재구성 사례
<Louvre Abu Dhabi>²⁶⁾

24) 건축 사진: <http://xhslink.com/o/4i7ARwJwSjv>

25) 건축 사진: <http://xhslink.com/o/1pdBQV6XkbbD>

이 건축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위치하며, 2017년에 완공/개관되었다. <Louvre Abu Dhabi>의 돔은 견고한 전통적 구조가 아니라, 여러 층의 기하학적 패턴이 중첩되어 형성된 공간적 격자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크기와 방향을 지닌 패턴들이 교차 중첩되면서, 마치 ‘빛의 비’가 내리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돔이 규모와 중심성은 패턴과 빛, 그림자로 구성된 공간 관계로 변환되어 견고한 구조물을 시각 시스템으로 탈바꿈한다. 관람자는 먼저 전체 공간의 내부 구조를 인지하고, 이후에 내부 구조를 파악한다. 이러한 시각 방식은 전체를 우선시하는 시각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동시에 반복과 유사성은 복잡한 구조 속에서 시각적 통일을 확보하며 그 상징적 의미는 특정 종교적 형태에서 공공성과 공간 질서의 표현으로 확장된다.

이와 달리, 창호 문양의 인식은 주로 내부 구조 조직에서 비롯된다. 해체 단계에서 창호의 형태는 선형 요소로 구성된 분할 체계로 전환되며, 그 핵심은 분할과 연결의 관계에 있다. 특히 얼음 균열 패턴은 이질적이면서 질서정연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규칙성과 비규칙성 사이의 경계에 놓인다. 이와 같이 패턴을 새로운 시각적 구조로 전이시키는 과정의 핵심은 네트워크와 같은 확장 관계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논리는 건축가 랄프 존슨(Ralph Johnson)이 설계한 <Shanghai Natural History Museum>의 디자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림 8] 창호 요소의 재구성 사례
<Shanghai Natural History Museum>²⁷⁾

이 건축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하며 2014년에 준공되었다. 파사드는 불규칙한 공극들로 구성된 연속적 패턴의 외피를 형성하며, 그 구조는 자연의 균열 시스템을 연상시킨다. 전통적인 창호의 격자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표현 방식은 더 이상 균질하고 반복적인 패턴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스케일과 방향을 지닌 개

구부를 통해 위계적 구조를 형성한다. 복잡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계는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며 관람자는 건물을 하나의 연속적인 총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창호는 단순한 부분적 요소에서 건축 전체의 외피 시스템으로 확장되며 기능적 속성은 유지되는 반면 표현 방식은 경계의 분할에서 공간적 전환으로 변화된다. 기존의 장식적 요소는 약화되고 구조적 특성이 강화되어 공간 구성과 자연의 관계에 시각적 은유로 작동하게 된다.

3-3. 전통 건축 기호 전이 경로의 구조적 논리와 단계적 특성

기와, 박공, 돔 및 창호 등 전형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 건축 기호의 현대적 맥락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은 고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해체—재구성—재생”의 경로를 통해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요소는 먼저 식별되고 대표성을 지닌 형태 단위로 정제된다. 기와는 반복되는 곡선 체계로 나타나고, 박공은 기복하는 윤곽 경계로 표현되며, 돔은 중심성 구조로 개괄되고, 창호 문양은 분할 관계를 지닌 격자 체계로 전환된다. 이러한 단계는 단순한 형식 추출에 그치지 않고, 시각문화 맥락에서 “어떠한 기호가 전이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선별 논리를 반영한다. 이후 이러한 형태는 기본 시각 요소와 그 관계 구조로 더욱 분해되며, 예를 들어 기와의 단위 중첩, 박공의 연속 윤곽, 돔의 축선 체계, 창격의 격자 관계 등으로 나타나면서, 본래 복잡한 공간 형태는 분석 가능한 시각 언어로 전환된다.

재구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다른 구조 유형으로 재구성되며,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각기 다른 전이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Chengdu Xinjin Zhi Art Museum>은 기와의 층위 관계를 연속적인 표피 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China Xuan Paper Museum>은 박공의 윤곽을 통해 전체 공간의 경계면을 구성하였으며, <Louvre Abu Dhabi>은 패턴의 중첩을 통해 돔 구조를 재구성하였고, <Shanghai Natural History Museum>은 창격 관계를 통해 개구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이는 기존 형식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재구성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현대의 시각과 공간의 맥락에 편입될 경우, 원래의 기능적 속성과 역사적 의미는 점차 약화되는 반면, 그 안에 내재된 질서, 경계, 중심, 연결과

26) 건축 사진: <http://xhslink.com/o/6bckrfH4Xs56>

27) 건축 사진: <http://xhslink.com/o/37NFZq8vsCP>

같은 구조적 의미는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되며, 나아가 표면 또는 공간 시스템의 일부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건축 구성 요소는 시각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추출—해체—재구성—재생”의 경로는 전통 건축 기호의 전이 과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표현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 경로를 제시한다.

4. 전통 건축 기호 전이 경로의 유형적 특성과 방법론적 의미

4-1. 전이 경로의 단계별 특성 정리

제3장에서 구축한 전이 경로 모델을 바탕으로, 각 단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단일한 선형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선별, 분해, 재구성의 과정이 상호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동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 핵심은 전통 건축 기호가 구체적 형태에서 점차 추상적인 시각 단위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있다.

[표 5] 전통 건축 기호 전이 경로의 단계별 특성 정리

전이 단계	조작 방식	핵심 목표	전이 결과 특성
추출	핵심 요소 선별	인식 기반 구축	전형적 형태와 비례 특성 유지
해체	구조 관계 분해	기본 단위로 전환	구성 요소의 독립화, 관계의 이완
재구성	시각 관계 재조직	새로운 질서 구축	형식의 결합, 구조의 재구성
재생	체계적 표현	안정적 산출 구현	시각적 통일, 기호의 고정화

4-2. 전이 경로의 유형화 정리

구체적인 전이 실천에서, 주목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전이 경로는 조작 차원에서 서로 다른 강조 방식을 나타낸다. 각 단계의 주도적 역할을 기준으로 이를 형태 지향, 구조 지향, 기호 지향의 세 가지 기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경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정에서는 상호 교차하며 작동하고,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의 특성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인 특성 측면에서 보면, 형태 지향 경로는 건축의 외형을 주요 전이 대상으로 삼아 윤곽, 비례 및 기하학적 특성의 추출과 변환에 주목하며, 그 핵심은 시각적 형태의 단순화와 재조직에 있다. 구조 지향 경

로는 건축 내부의 조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축선, 비례 및 구성 논리를 전이의 중심 요소로 삼고, 형태의 재현 보다는 관계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기호 지향 경로는 문화적 의미와 시각적 식별성에 보다 주목하며, 핵심 특성의 정제를 통해 상징적 표현을 형성하고, 기호적 속성의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표 6] 전통 건축 기호 전이 경로 유형 특성 비교

경로 유형	전이 중점	핵심 단계	조작 특성	표현 경향
형태 지향	외형	추출 / 재구성	윤곽 추출, 기하학적 단순화	형식 직관성
구조 지향	조직 관계	해체 / 재구성	관계 분해, 질서 재구성	구성 논리
기호 지향	문화적 의미	추출 / 재생	특성 강화, 의미 응축	높은 식별성

4-3. 전이 경로의 내적 논리와 방법적 특성

앞서의 단계별 분석과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전이 경로의 내적 논리를 보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통 건축 기호의 전이 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 방법적 특성을 드러낸다.

첫째,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전환 논리이다. 전이 과정에서 기존의 건축 형태는 점차 구체적 구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개념화된 시각 단위로 정제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적용 가능성과 재활용의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둘째, “전체에서 관계로”의 재구성 논리이다. 전이는 기존 형식의 재현에 있지 않고, 구조 관계의 분해와 재조직을 통해 새로운 시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이는 디자인이 대상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표현에서 시스템으로”의 생성 논리이다. 재생 단계에서 전이 결과는 점차 안정화되며, 단일한 표현을 넘어 규범성을 지닌 시스템 구조로 발전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표 7] 전이 경로의 방법적 특성 정리

방법 특성	전환 방향	핵심 논리	결과 표현
추상화 경향	구체 → 추상	정보 압축	형태 단순화
관계적 재구성	전체 → 관계	구조의 분해와 재조합	구성 질서
시스템적 생성	표현 → 시스템	규범화된 산출	안정적 표현

4-4. 전이 경로의 방법적 의미

시각문화 맥락에서 전통 건축 기호의 전이 경로는 비교적 명확한 방법론적 가치를 드러낸다. 디자인 방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경로는 기호 전환의 과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설계 과정에 적용 가능한 비교적 명확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전이 경로는 전통 문화 기호의 현대적 전환을 위한 참고 가능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디자인이 단순한 경험 의존에서 벗어나 방법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그 과정의 통제 가능성과 반복 가능성을 일정 수준에서 향상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경로는 형식적 혁신과 문화적 지속성 사이에 비교적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한다. 단계별 전환과 재조작을 통해 전통 기호는 핵심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시각문화 맥락에 적응하여 표현 방식의 갱신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로는 높은 일반성을 지닌다. 그 핵심 논리는 특정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시각 구조와 기호 생성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분야로 확장·적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이 경로는 전통 건축 기호 전환 과정에 대한 정리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설계 방법론적 틀로 이해될 수 있다.

5. 결론

시각문화 맥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배경 속에서, 전통 건축 기호의 전환은 단순한 형식의 계승에서 벗어나 시각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재조직 과정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전통 건축 기호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추출—해체—재구성—재생”의 전이 경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인 요소와 사례를 결합하여 각 단계의 조작 방식과 내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이 과정은 구체에서 추상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동적 특성을 보인다. 즉, 추출을 통해 인식의 기반을 구축하고, 해체를 통해 구조 관계를 분해하며,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각 질서를 형성하고, 재생 단계에서 표현의 안정화와 시스템화를 실현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형식의 변환에 그치지 않고, 정보 압축과 관계 재조직에 기반한 재부호화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전통 건축 기호를 구체적

구성 요소에서 보편성을 지닌 시각 단위로 전환시켜 현대 시각문화 맥락에서의 전달과 적용에 적응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전이의 중점에 따라 경로를 형태 지향, 구조 지향, 기호 지향의 세 가지 기본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 세 가지 경로는 각각 시각적 표현, 구조적 조직, 의미 표현의 서로 다른 차원에 대응하며, 실제 적용에서는 상호 교차하여 다층적인 전이 방식을 구성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서로 다른 전이 전략 간의 차이를 일정 부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조작 논리를 이해하는 데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전이 경로가 분석적 설명 차원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설계 방법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전통 건축 기호가 현대적 맥락에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참고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며, 디자인이 형식적 혁신과 문화적 지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돕고, 나아가 매체 간 확장 가능성 또한 갖추게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주로 전형적 요소의 경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연구 대상의 범위와 문화 간 비교 측면에서는 여전히 확장의 여지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실천 사례와 매체 유형을 결합하여 전이 경로의 적용 가능성과 확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Barthes, R., A. Lavers, Trans., 『Mythologies』, Hill and Wang, 1972
2. Berger, J., 『Ways of seeing』, BBC and Penguin Books, 1972
3. Foucault, M., 『Panopticism. In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Books, 1995
4. Lidwell, W., Holden, K., & Butler, J., 『Universal principles of design (Revised &

- updated ed.)』, Rockport Publishers, 2020
5. Mitchell, W. J. T., 『Picture theory: Essays on verbal and visual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6. Mirzoeff, N., 『The right to look: A counterhistory of visibility』, Duke University Press, 2011
 7. Peirce, C. S.,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8.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9. Wagemans, J., Elder, J. H., Kubovy, M., Palmer, S. E., Peterson, M. A., Singh, M., & von der Heydt, R., 'A century of Gestalt psychology in visual perception: II. Conceptu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2012
 10. 梁炜莹, '传统建筑符号的转译研究 - 中外近现代建筑设计对传统建筑元素的处理和运用', *城市建筑*, 2024
 11. 辛铁峰, 中国传统民居装饰在新中式家居设计中的应用实践, *산동예술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12. qq.com
 13. sina.cn
 14. xhslink.com
 15. zh.wikipedia.org